광주 방문 **로버트 오그번** 주한 미대사관 공보참사관

입양아로 떠난 고국 외교관으로 돌아와…'대사의 입' 역할

"다른 피부색·내성적 성격 극복하려 노력해 꿈 이뤄

리퍼트 대사 피습, 한미동맹 전화위복의 계기 될 것"

"마크 리퍼트 대사 피습 직후 한국민이 보내준 성원에 당사자는 물론 대사관 모든 직원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대사는 특히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호남인들의 커다란 관심에 경의를 표하고자 저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머지 않아 직접 방문해 고마운 마음을 전할 예정입니다. 비록 끔찍한 사건을 막지는 못했지만 슬기롭게 잘 극복해 한미 우호관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지혜를 모아나갔으면 합니다."

17일 광주시청을 방문한 로버트 오그번(55·한국명 우창제)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참사관은 리퍼트 대사에게 보내준 각계각층의 격려를 잊지 않고 양국관계 개선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예상치 못한 피습은 리퍼트 '대사의 입' 역할을 하는 공보참사관으로서 엄청난 충격이었다.

사건이 터진 직후 한국은 물론 전 세계의 관심이 그의 입에 집중됐다. 병원으로 후송된 직후부터 각국 언론사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대사의 상태를 전하느라 진땀을 빼기도 했다.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리퍼트 대사를 지켜보고 있는 그는 이번 사건이 확고한 한미동맹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되레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대사는 지난 2014년 9월 한국에 온 이후 진심으로 이곳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사건이 남긴 개인적인 상처는 깊지만 차츰 건강을 회복하면서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한 열정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현재는 주한 미 대사가 하는 본래 역할 이외에도 양국 간 교류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업무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오그번 공보참사관은 낯선 땅에서 큰 위기를 겪었지만 한국인을 저버리지 않은 리퍼트 대사에게 마음 깊은 곳에서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낀다고 했다. 그에게도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59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생후 10개월 만에 미국인 가정으로 입양됐다. 그곳에서 생활하며 영어로 말하는 미국인이 됐지만 자신의 뿌리는 잊지 않았다.

1982년 미국 메릴랜드대 국제관계학과를 졸업할 때 선택한 논문 주제는 '한국의 인권상황과 교회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입양됐다는 사실도 숨기지 않고 강점으로 발전시켰다.

"남과 다른 것은 강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걸릴지라도 이를 받아들이고 성숙해지는 계기로 삼는다면 누구보다 특별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낯선 나라로 입양된 저도 피부색이 다르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내성적이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노력한 덕분에 외교관이란 꿈을 이뤘습니다. 한국 사회가 입양이란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입양되는 아이들도 많지만 자녀를 갖지 못한 부모들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입양아로 떠나야 했던 고국 땅을 외교관이 돼 다시 찾은 그는 지난 1991년 대구 미국문화원장으로 부임해 3년간 근무하며 민주화에 대한 한국인의 강렬한 열망을 지켜봤다. 이후 이라크와 베트남, 이집트에서 근무하면서 사회를 보는 새로운 눈을 얻게 된 점을 큰 축복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된장찌개가 유명하듯이 베트남과 이라크에는 고유한 수프가 있습니다. 각각의 생활환경 속에서 서로 다른 음식이 발달한 것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은 작은 행운이었습니다. 세계인들이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또 한국이란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인지 배운 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멀지 않은 시기에 광주를 방문하길 원하는 리퍼트 대사와 함께 두 나라가 협력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상수도 요금 8월부터 7.5% 인상

市, 2016년 5.2%, 2017년 3.9% 연차 인상키로

광주시 상수도 요금이 오는 8월부터 평균 7.5% 인상되는 등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오른다. 지난 2013년 평균 6.42% 인상 후 2년 만이다.

광주시는 17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상수도 요금을 올 8월 7.5%, 2016년 5.2%, 2017년 3.9% 등 연차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20㎥ 기준으로 현 8400원에서 9200원으로 800원이 오르며, 내년에는 1만원, 2017년엔 1만600원으로 오른다. 일반용 20㎥는 1만600원에서 8월 1만1600원, 내년 1만2600원, 2017년 1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광주시의 상수도요금 인상은 행정자치부의 '상수도 요금 적정화 목표제'에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2013년 기준 1t당 생산원가(624원)에 비해 공급단가(544원)가 80원 낮아 116억원의 결함액이 발생했다.

광주시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도 87.1%로 전국 특·광역시 평균 90%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광역시별 현실화율은 울산이 102%로 가장 높고, 인천 95%, 서울 92%, 대전 89%, 대구 88% 등이다.

광주시의 하수도 요금도 지난해 11월 10.38% 인상안이 결정돼 오는 5월부터 적용되는 만큼 3개월 간격을 두고 상하수도 요금이 모두 오르게 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상수도 요금을 연차적으로 적정화 하는 등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는 5월 상수도 요금 인상을 위한 관련 조례개정과 입법예고, 심의·의결을 거친 뒤 8월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19개 시·군에 '작은 영화관'

전남도, 2018년까지

2018년까지 영화관이 없는 전남도내 19개 시·군에 '작은 영화관'이 들어선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영화관이 있는 목포, 여수, 순천을 제외한 19개 시·군에 100석 미만 규모의 작은 영화관을 2018년까지 건립한다.

우선 올해는 장흥군(5월)과 고흥군(8월) 등 2곳에, 구체적인 시기는 미정이지만 조만간 광양시와 해남군에도 작은 영화관이 개관한다.

고흥군은 상대적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고흥읍 내에 작은 영화관이 들어설 유휴시설을 찾지 못해 과역면에 건립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은 영화관 건립비는 국비 5억원, 도비 1억5000만원, 시군비 3억5000만원 등 10억원씩 소요된다.

전남도는 오는 20일 전남도 및 각 시·군 관계자, 전남영상위원회 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작은 영화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KT, 전국 모든 섬 '기가화'

2019년까지 최고 전송 속도 1Gbps 인프라 구축계획

KT가 2019년까지 신안 임자도에 이어 국내 모든 도서지역에 최고 전송 속도 1Gbps의 '기가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부사장)은 '백령 기가 아일랜드 구축' 선포식에 앞서 지난 16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내 백령면사무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도서지역 기가화 계획을 밝혔다.

현재 국내 유인도 494개 가운데 통신서비스용 해저 광케이블이 깔린 곳은 57개소. 나머지 437개소는 수심이나 조류 간만의 차 등으로 광케이블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어서 마이크로웨이브 방식의 무선통신망이 필요하다. 통상 마이크로웨이브는 전송 속도가 150Mbps 안팎에 불과하지만 KT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기가 마이크로웨이브는 500Mbps 이상의 속도를 낸다.

KT는 437개 도서 가운데 올해 중으로 166개소(38%)에 기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2017년까지 이를 293개소(67%)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2019년에는 437개 모든 섬의 네트워크를 기가화한다는 방침이다.

오 부사장은 "KT 기가 인프라의 가장 큰 장점은 광케이블-마이크로웨이브-위성 등을 활용한 트리플 네트워크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는 특히 재난·재해 때 큰 위력을 발휘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유기준 해수부 장관 오늘 여수·광양 방문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18일 여수·광양 지역을 찾는다.

유 장관은 여수세계박람회장을 방문해 사후활용 현황을 보고받고, 민간자본을 유치해 박람회장을 국제 해양관광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정부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또 유 장관은 해양수산 업계 대표와 간담회를 열어 여수 지역의 크루즈선 유치 대책과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어업인 피해 지원 방안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